장 로 교 직 분 론

김 선 근

목 차

제Ⅰ부 서 론
교회정치와 장로주의
(1) 성경적 근원
1) 名 稱
2) 上古的 起源
3) 同一職分의 다른 이름
4) 民選과 代議
(2) 칼빈의 공적
1) 歷史的 발전
2) 칼빈의 공적
3) 教會職分의 重要性
제Ⅱ부 본 론
敎會의 諸職分
(1) 非常職分
1) 사 도
2) 선지자 또는 예언자
3) 전도인
(2) 通常職分
1) 장 로
2) 목 사
3) 집 사
제Ⅲ부 결 론
敎會의 일치
(1) 召 命
(2) 성령의 內住
(3) 형제간의 服從
(4) 사도시대의 교회는 한 몸

제Ⅰ부 서 론

교회정치와 長老主義

(長老主義의 根源과 發展)

(1) 성경적 근원

1) 명 칭

「장로회」라는 말은 「장로」라는 말을 語根으로 한 것인데 이 「장로」라는 말은 新約에 약 60번 舊約에 약100번 나타난다.

英語에서는 「장로회」를 "presbyterian=프레즈비테리안," 「장로」를 "elder=엘다"라 하므로 양자의 意味上 新約을 把握함에 설명이 要求된다. 그러나 헬라어(πρεσβύτερος=장로, πρεσβυτέριον =장로회의)와 한국어에서는 같은 말이 양자에 共用됨으로 兩者의 意味上 親緣이 自然스럽게 分明해 진다.

文字的으로 해석하면 장로교회란 長老에 依하여 政治하는 敎會이다.

定義를 좀 더 확대하면 長老教會란 民選長老들에 依하는 代議形의 政治를 行하는 教會이다.

2) 上古的 起源

長老主義의 起源은 聖經歷史의 上古時代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스라엘人 中에 長老職은 족장시대부터 있었고(창50 : 7, 출3 : 16, 4 : 29, 30, 12 : 21, 18 : 12, 신5 : 23, 등), **모세**때에 이르러 백성의 대표로 長老를 세워 百姓의 爭訟을 처리하게 하였고(출18 : 21~25, 민11 : 16~25, 24 : 1) 그 後의 유대歷史에도 長老에 관한 기록이 있고 신약시대에도 여러번 기록되었다. (마5 : 22, 26 : 3, 행4 : 8, 23, 6 : 12, 23 : 14, 24 : 1, 25 : 15) 使徒時代에 使徒들은 基督教 福音傳道의 結果로 設立되는 여러 지역의 여러 교회에 長老들을 세워 교회의 조직적 정치를 始作하였다. (행14 : 23, 20 : 17, 딛1 : 5)

또한 長老들의 資格이 묘사되었고(딤전3 : 1~7), 그들에 對한 대우가 지시되었고(딤후5 : 17) 그들의 직무상 당연히 가져야 할 精神과 態度가 訓示되었다(벧전5 : 1—5).

3) 同一職分의 다른 이름

新約에 「감독」이라는 말이 5次 發見되나 그것은 實로 장로의 다른 이름일 뿐이다. 바울은 에베소 長老들을 **밀레도**에 招請하여 면담하면서 그들을 「감독」이라고 불렀다(행20 : 17, 28). 또 그는 「디도서」에서도 각성에 장로들을 將立할것을 命令하면서 그들을 「감독」이라고 불렀던 것이다(딛1 : 5, 7). 이같은 성경적 표현들을 보면 「장로」와 「감독」은 同職異名이었다는 것이 分明하다. 이런 사실은 英國教會(감독정치의)의 **라이콜** 감독과 기타 탁월한 학자들도 인정하였다.[1]

장로들이 혹시 감독들로 호칭된 사실은 後代 教會政治의 발전에 重要한 관계를 가졌다.

"잘 治理하는 長老들을 倍나 존경하되 말씀과 教訓으로 수고하는 장로를 더 존경하라"고 한 「디모데전서」 5장17절의 말씀은 장로교회의 治理長老와 教訓長老 혹은 설교장로(목사)의 二重長老를 두는 制度의 重要한 根據이다. 그리고 使徒 **베드로**가 自身을 장로라고 칭한 것도 의미있는 사실이다. (벧전5 : 1)[2]

4) 民選과 代議

新約의 장로들이 民選을 받아 취임했다는 사실은 강한 証據를 가지고 있다. **맛디아**의 選擇에 會衆이 參觀하였고(행1 : 23—26), 일곱집사의 選擇에 會衆이 主動하였으니(행6 : 3, 5), 그 後에 設立된 여러 지역의 教會들에서 장로들을 擇하여 세울때에도 會衆이 主動的 역사를 했을 것은 의심없는 사실이다.

특히 「사도행전」 14장23절에는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라고 하였는데, 「택하여」라는 原語(χειροτονέω)는 文字的으로 '손을 들어 선택한다'는 뜻이라고 한다.[3] 이는 按手에 의한 任職을 뜻하는 것보다 擧手에 依한 選擧로 보는 것이 妥當할것 같다.

그리고 初期 基督教 文献인 教父들의 글에서도 민선의 痕跡은 남아 있는데 예를 들면 主後100년경의 **로마**의 教父인 **클레멘트**는 教會職員들은 "全教人들의 承諾에 依하여" 그들의 職任을

받았다고 하였다.[4]

신약에서 장로들이 民選되었다는 것은 위에서 진술한 것과 같은 論據를 가진 동시에 新約教會가 代議政治 形式을 取하였다는 것을 强하게 표시한다.

사도시대에는 장로들로 구성된 대의기관인 擴大會議가 있었다는 것도 성경이 표시하고 있다. 異邦人 入信者들에게 할례를 요구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안디옥** 教會에서 일어났을 때에도, **바울**과 **바나바** 같은 큰 지도자 아래 있는 **안디옥** 교회가 그 자체로서 解決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예루살렘 會議에 문제를 上告한 것은 그 會議는 使徒들과 長老들로 구성되어 今日의 老會나 總會와 유사한 무엇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 회의의 決定은 權威的이어서 안디옥 教會와 다른 모든 教會들이 受納하였다(행15장).

「디모데전서」 4장14절에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라고 한 말씀 中에 「장로의 회」(πρεσβυτέριον)는 presbytery로 英譯되어 「老會」와 同一한 말로 나타난다. 그 「老會」는 現代의 老會와 詳細한 點에서까지 一致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原理上 同一視 될 수있는 것으로 안다. 今日의 개혁파와 장로파의 모든 교회는 이러한 성경적 論據에 依하여 몇 층의 확대회의를 가지고 모든 個教會들을 結束하고 있다.

신약에 나타난 教會政治의 模型이 長老主義였다는 것은 이상에 진술한 몇 가지로 論証되었고 長老主義 政治는 世界의 다른 어느 教派보다도 使徒的 教會의 모형에 가깝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2) 칼빈의 공적

1) 歷史的 發展

使徒 요한의 別世로부터 존·칼빈의 宗教改革에까지 약14세기간의 시기는 성경적인 長老政治의 埋沒期였다. 主後 100년경 사도요한의 別世와 함께 사도들의 교회지도는 끝나고, 또 신약성경도 아직 全體로써 편집되지 못하였고 印刷術이 없으므로 널리 公布되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狀況中에 教會는 迷路에 들어, 新約的 標準의 교회정치를 離脫하기 始作한 것이다. 처음에는 교회의 장로(감독)中에서 有能한 한 사람이 會議의 司會者로 選拔되어 「감독」이란 명칭을 독점하게 되고, 다음에는 이 「감독」들은 작은 교회들위에 세력을 가지고 臨하였고 마침내는 한 무리의 교회들을 官轄하는 教區의 감독제가 생기게 되니 이것이 主後 250년경이라고 하였다.[5]

얼마후 大都府의 감독들을 다른 教區의 감독들 보다 더 큰 權威를 가지고 「教長」이라 칭했는데, 그들은 **로마, 콘스탄티노플, 알렉산드리아, 안디옥, 예루살렘**의 감독들이었다. 이 감독발전의 과정은 500년의 긴 세월을 계속하다가 주후590년에는 충분히 成長한 로마教皇이 나타나서 全 西方 教會의 머리로 올라섰다.

여러 世紀가 지나가는 동안에 教皇權은 자라고 자라서, 主後 1073년 **그레고리七世**는 全教會

의 最高元首로, 나아가서는 世俗的 권세까지 쥐고 列王에게 加冠免冠할 權利를 스스로 主張함에 이르렀다. 1302년에는 **보니페이스八세**가 영적, 세속적, 두 權利를 말하고 俗劍은 靈劍에게 굴복하지 아니하면 안될 것을 主張하였다.

2) 칼빈의 공격

그러나 한편 기독교의 主流가 政治, 敎理, 예배, 생활에 있어서 新約的 標準을 떠나 迷路를 달리고 있을 때에도 敎會를 순수한 敎理와 生活에 이끌어 돌아오려는 獨立的 抗議的 群體은 아주 없어져 버린 것은 아니었다.

3世紀 北阿의 **몬테니스트派** 5世紀 **스콧틀랜드**와 **아일랜드**의 **겔틱기독교도**, 그리고 **스콧틀랜드**의 **킬디스**, **南佛**과 **이태리**에 일어나서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는 왈덴敎徒들이다. 그리고 英國의 **위클릿**, **보헤미아**의 **헛스**, 그리고 「신학문」같은 改革運動들이 있다가 1517년 10월31일 독일의 뷔텐벍敎會堂에 **마틴·루터**의 95箇條의 揭示로 宗敎改革의 烽次는 높이들렸다. **루터**는 神學의 詳細한 體係나 政治의 精密한 體制를 만들어내지는 않았으나 **죤·칼빈**이 나와서 칼빈主義 改革神學 體係와 代議的 敎會政治 體制를 형성하여 놓은 것이다.

죤·칼빈은 이 모든 歷史的 諸變遷을 調査하고 長老會的인 敎理들과 原理들을 復活시켜 近代長老敎會를 組職하는 礎石을 놓게 된것이다.

칼빈이 **파렐**과 함께 **제네바**에서 追放되기 前에 信道揭要와 要理문답은 準備되었고, 그 文書들은 修正되고 擴大되어 교회의 採用을 입게 되었다. 「헬버틱」 제1 신도게요는 1536년에, 헬버틱 제2 신도게요는 1567년에 나타났다. 신도게요는 칼빈주의 교리체계를 단순한 형식으로 서술한 것으로서 後年, 佛, 和, 蘇, 英등 여러 나라에서 作成된 신도게요들과 信經들 위에 큰 영향을 주었다.

특히 **칼빈**이 **제네바**에서 제정한 「政治와 勸懲의 法式」은 그의 信道揭要와 함께 앞서 말한 여러나라의 개혁교회 및 長老敎會의 政治와 권징의 표준문서에 전적으로 영향을 주었다. 또 그의 「기독교강요」 제4권은 敎會論을 內容으로한 것으로서 長老主義 敎會政治를 강하게 力說하며 상세히 해설한 것이다.

이상과 같이 칼빈은 長老敎會 政治組織의 우수한 代議的 體制를 近世敎會에 공헌한 것이었다. 오늘날 이 땅에도 人口의 一割이 넘는 信徒수를 確保하였고, 그 수의 절대다수가 장로교회이다. 또 칼빈의 영향은 교회를 넘어 世俗的 政治面에까지 民主政治의 發展에 큰 感化를 주었다고 인정하는 것이다.

(3) 교회직분의 중요성

칼빈은 그의 著書 「기독교강요」 제4편 3장에서 교회직분에 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다. "주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自身의 교회를 統治하시기 위한 「秩序」에 對하여 論함에 있어서, 다만 하나님만이 교회에 있어서 統治하시고 支配하셔야 하며, 다만 하나님만이 교회에 있어서 위

에 서 계시오며, 또한 이 統治는 그의 말씀만에 依支하여 실현되며, 수행 되어져야 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사이에 있어서 可見的 形像으로 現臨하시지 않으신다(마26 : 11). 그러므로 주께서는 自身의 뜻을 우리들을 위하여 公布하시고 실현시키시기 위하여 인간의 奉仕를 여기에 適用하시는 것이다.[6] 라고 했고 계속해서 말하기를 "이것은 말하자면 「代理人」의 職分으로서 이 代行者들에게 權利와 榮譽를 讓渡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그들의 입을 通하여 自身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다. 그것은 마치 일꾼이 일을 하는데 도구를 사용하는 것과 일반적인 것이다"[7]라고 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수행함에 있어서 아무런 補助手段 없이 말씀 한 마디로도 혹은 하늘의 천사들로도 수행하실 수가 있으나 何必 인간을 通하여 奉仕하게 하시는 데에는 중요하고도 깊으신 뜻이 있는것이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方法을 쓰심으로 우리 인간을 매우 貴重히 여기신것을 分明히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人間들 中에서 自身의 代理로서 이 世上에 있어서의 使臣의 職分[8]을 遂行할 者를 선택하여 만세전부터 감추신 당신의 뜻의 해설자로서 또는 봉사자로서, 말하자면 당신을 代表하는자가 되게 함으로서 인간을 존대해 주신 것이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의 몸들을 「성전」이라 부르신 것이 결코 空虛한 言說이 아닌 사실도 경험을 通하여 체험케 해주신다.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입을 통하여 마치 「聖所」로부터 말씀하시는 것처럼 인간에 대하여 하시기 때문이다.[9]

그리고 우리는 이 職分으로 말미암아 最善의 유효한 讓遜의 연습을 行하게 되어진다. 뿐만아니라 나아가서는 하나이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공동으로 이바지함에 이르게 되는것이다.

제Ⅱ부 본 론

敎會의 諸職分

(1) 非常職分

비상직분이란 사도시대의 교회에만 있었던 직분들이었다. 「우리의 福되신 主께서 처음에 이적적 은사들을 받은 사람들의 선교에 依하여, 교회를 상이한 民族들로 부터 모아내어 한 단체로 形成하셨다」 (웨스트민스터 교회정치, 3장1조) 이 이적 은사를 받은 인물들은 사도시대의 非常職分陣의 핵심을 구성하였던 것이다. **칼빈**은 교회정치의 주관자로서 「에베소서」 4장11절에 열거된 다섯 가지 직분을 지적하고 그 중에 처음 셋은 비상직분이요, 마지막 둘은 통상직분이라 하였다.[10]

1) 사 도

엄밀히 말하면 이 명칭은 예수님의 택하신 12사람과 바울에게만 적용될 것이나 또한 바울의 사역에 조력하고 사도적 은사와 은혜를 받은 어떤 사도적 인물들에게도 적용되었다(행14 : 4, 14, 고전9 : 5, 6, 고후8 : 23, 갈1 : 19)

사도들은 萬代教會의 기초를 設置할 특별직무를 가진 것이었다. 오직 그들의 말씀을 통하여 그 후 만대의 신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가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原始教會의 사도들 이었던 것같이 現今教會의 사도들이기도 하다.

칼빈은 말하기를 "사도적 직무의 성질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막16 : 15)고 한 명령에 依하여 明白하다. 고정된 한계가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고, 오직 전 세계가 그리스도의 순종아래 축소될 것으로 위탁되어 복음을 그들이 할 수 있는데 까지 널리 선포하므로 도처에 그의 나라를 세우게 한 것이다. 따라서 **바울**은 자기의 사도직을 証明할 때에 자기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어느 한 都市를 얻었다고 말하지 않고 오직 복음을 멀리 또는 널리 傳播하였다고, 또 다른 사람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고 오직 그의 主의 이름이 들리지 않은 곳에 교회들을 심었다고 말하였다. 그러므로 사도들은 세상을 그것의 叛逆에서 참된 하나님의 順從에로 이끌어 돌아오며 복음의 傳播로 도처에 그의 나라를 設立하기 위하여 파송된 것이었다. 혹은 다른 말을 選擇한다면 그들은 教會의 최초 건축사들로서 全世界에 교회의 기초를 쌓으려는 것이었다."[11]

그리고 **하지**도 말하기를 "사도의 특별한 직무는 예수의 証人이 되어 福音을 전파하며, 예수의 이름과 그 권세를 의지하여 교회의 信經과 예배모범과 정치를 반포하며 또한 교회를 설립하는 것과 확장하는 일을 주관하는 것이었다(행1 : 8, 26 : 16, 갈1 : 12, 고전5 : 3~5, 고후10 : 8, 11 : 28)고 하였다.[12]

사도들은 어떤 특별한 자격들을 가졌으니 그들은 (ㄱ) 그 使命을 직접 하나님께서 혹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받았으며(막3 : 14, 눅6 : 13, 갈1 : 1),

(ㄴ) 그리스도의 생애에 특별히 그의 부활의 증인들이었으며(요15 : 27, 행1 : 21, 22, 고전9 : 1)

(ㄷ) 그들의 口述的 成文的 모든 教訓에 하나님의 영의 영감을 의식하였으며(행15 : 28, 고전2 : 13, 살전4 : 8, 요일5 : 9~12),

(ㄹ) 이적 행하는 權能을 가지고 여러시기에 그것을 사용하여 그들의 使信을 확정하였으며(고후12 : 12, 히2 : 4), 사람들에게 안수하므로 성령을 받게하였으며(행8 : 17, 18),

(ㅁ) 그들의 使役이 풍부히 복주심으로 그들의 努力을 하나님이 열납하시는 표적을 보였다(고전9 : 1, 2, 고후3 : 2, 3, 갈2 : 8).

사도들을 **後繼**하여 그 직분을 받은 자가 없고 사도들이 죽은 후에는 예수의 말씀을 친히 듣거나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자가 없고, 사도와 같이 특별한 권능을 받거나 사도의 행하던 일을 행할만한 자가 다시 없었다. 12사도와 바울 외에는 다시 사도로 피택된 자가 없었으며 사도시대에 설립된 교회와 그후에 계속 설립된 교회가 그 13사도 외에는 다른사도를 받지 아니하였다.

거짓 사도와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오겠다는 예언이 있고 또 거짓 스승을 책한 말씀이 있다(고후11 : 13, 벧후2 : 1—4)

2) 선지자(혹은 예언자)

신약에서도 선지자들을 말한다(행11 : 28, 13 : 12, 15 : 32, 고전12 : 10, 13 : 2, 14 : 3, 엡2 : 20, 3 : 5, 4 : 11, 딤전1 : 18, 4 : 14, 계11 : 6). 이 선지자들은 교회의 건덕을 위한 말씀의 은사를 非常히 많이 받은 듯하고 이따금 神秘를 啓示하며 미래의 일을 예고함에 있어 도구로써 사용되었다. 이 선지자들의 은사의 첫 부분은 기독교회에 영구히 계속하여 개혁파 모든 교회에 완연한 확정을 받았으나, 그 둘째 부분은 이적적, 일시적 성질을 가진 것이었다. 그들은 특별한 영감아래서 발언하는 점에서 通常의 성역자들과는 상이하였다.

칼빈은 말하기를 "선지자들은 신적 의지의 모든 해석자들을 의미하지 않고 특별한 계시로 뛰어난자들을 의미하나니 지금은 이같이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으며 혹은 그들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였다.[13]

J. A. 하지도 말하기를 "사도와 선지자의 구별은 이것이니 선지자는 이따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고 사도들은 항상 성령충만함을 받았다. 그러므로 사도의 직분은 더욱 중요한 것이다. 선지자의 직분이 폐지됨은 신구약이 완성되어 선지자의 존재가 필요하지 않은 때문이다. 예수께서 사도와 선지자의 직분을 존속시킬 방침을 지시하심이 없고 그 후에는 특별한 권능을 주신 일이 없은 즉 이 직분들을 폐지하기로 정하신 줄로 안다[14]고 했다.

3) 전도인

사도와 선지자 외에 전도인이 성경에서 言及되었다(행21 : 8, 엡4 : 11, 딤후4 : 5) **빌립, 마가 디모데, 디도**는 이 반열에 속하였다. 推想하건데 주께서 사도들의 다음 지위에 임명하신 70제자들도 이와 동일이었다고 생각한다.[15]

이 전도인들에 관하여 알려진 것은 적다. 그들은 사도들을 수행하여 조력하였으며, 혹시 사도들에게서 특별사명을 받아 파송되기도 하였다. 그들은 지위에서 사도들보다 낮고, 직무에서 그들 다음에 있어 그들의 대리로 행동하기도 했다. 그들의 사역은 전도하고 자비를 베푸는 것이었으나 또한 장로들을 장립하며(딛1 : 5, 딤전5 : 22), 권징을 시행하였다(딛3 : 10). 그들의 권위는 보다 일반적이며 정규적 성역자들의 그것보다 우월하였던듯 하다. 그들의 직분은 사도들을 보조함이었으므로 사도직의 폐지와 함께 폐지되었다고 볼 것이다.

(2) 보통직분

칼빈은 「에베소서」 4 : 11의 다섯 가지 직분 중에 끝으로 두 직분, 즉 목사와 교사를 교회의 정치를 주관하는 보통직분이라고 하고, 교사의 직무는 목사의 직무에 포함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는 「로마서」 12장7절, 8절과, 「고린도전서」 12장28절의 이름들에서 「다스리는자」와 「긍휼을 베푸는 자」라는 두 직분 즉 장로와 집사를 취하여 통상직분의 반열에 추가하였다. 또 동시에 그는 감독, 장로, 목사는 본래 같은 직분의 다른 이름들이라고 보았다.[16]

웨스트민스터 「교회정치」는 이에 호응하여 말하기를 "교회에 통상적 또는 영구적인 직원들은 감독들 혹은 목사들과 통상으로 치리장로들이라 칭하는 교인 대표자들과 집사들이다"(3장2조)

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J. A. 하지는 말하기를 "예수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 존재할 직분은 목사, 장로, 집사이다. 이 세 직분이 계속하여 존재할 이유가 셋 있으니, 이 직분들은 전도하고 교육하는 것과 신령한 중에서 치리하는 것과 구제하는 것인데 이는 교회에 제일 필요한 일이므로 항상 있을 것이다. 또 성경이 이 3직의 책임과 자격과 선거방법을 가르침을 보니 항상 존재할 증거이다.

구약시대 유대교의 각회당에는 회당장과 보조하는 장로들이 있었는데 예수교회가 설립될 때 그것을 모방하여 職制를 設定한 것이었다. 사도시대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 제도를 잘 알았으므로 사도들이 교회를 설립할 때 이것을 모방함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사도들의 전도로 인하여 유대교인들이 전체로 예수를 믿는 때에는 회당은 예배당으로 회당장은 장로로 개칭되었다. 회당이 없는 곳에 예배당을 신설할 때에는 목사와 장로 몇 사람과 집사 몇 사람을 택하여 세운 것이었다.[17]"

1) 장 로

통상직분들 중에 「장로」(πρεσβύτερος) 혹은 「감독」(επίσκοπος)이 제1차로 고찰 될만함은 그들 중에 교회정치를 주관하는 기본적 직분이 있기 때문이다.

개혁교회 정치원리에 있어서는 목사라도 장로의 일종으로 보게된다. 「장로」는 연상자를 의미하고 「감독」은 감시자를 가리킨다. 「장로」라는 말은 성경에서 年老者들과 또는 유대교 회당에서 치리하던 상급직원들에 유사한 계층의 직분들을 지시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다. 이스라엘인중에 장로직은 족장때에도 있었고(창50 : 7, 출3 : 16, 4 : 29, 30, 12 : 21, 등), 모세때에는 백성의 대표로서 장로들이 백성의 송사를 처리하게 되었고(출8 : 21~25, 민11 : 16~25, 24 : 1), 그 후의 유대교 역사에도 장로에 관한 기록이 있고 신약에도 여러번 기록되었다(마26 : 3, 눅7 : 3, 행4 : 8, 23, 6 : 12, 23 : 14, 24 : 1, 25 : 15).

신약교회에서 「장로들」은 교회의 생활에 일찍부터 나타나서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복음 전하는 자들과 함께 교회 지도자의 반열에 들었다. 「장로들」은 최초로 「사도행전」 11장30절에서 언급 되었으나 그 직임은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에 이미 잘 알려져 있었고 집사 제도보다도 이전에 있었을 수 있다. 적어도 「사도행전」 5장6절에 「젊은 사람들」(Οἱ νεωτεροι)이라는 명사는 「장로」들과 구별된 인물들을 가리킨듯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다.[18]

「장로」와 「감독」이라는 두 명사는 고대적으로 사용되어 동일한 직임의 두가지 명칭인 것으로 나타났는데(행20 : 17, 28, 딤전3 : 1, 4 : 14, 5 : 17, 19, 딛1 : 5, 7, 벧전5 : 1, 2), 「장로」 라는 이름은 주로 셈족 사회와 애굽에서 통용되었던 이름과 職能인듯 하고, 이에 反하여 「감독」이라는 이름은 西北方의 문화권에서 통용한 직함인듯 하다. 그것은 복음이 점차 북상하여 **소아세아**와 **마게도니아, 아가야** 지방에 까지 확장되었을 때에 이 이름들이 기록에 나타나 오르는 것으로도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어쨌든 「장로」라는 명칭은 「감독」이라는 명칭에게 점차로 빛을 잃어가

다가 마침내 폐기된 듯하다. 아마 장로 혹은 감독의 직임은 처음에 유대인 교회에서 설립되고(약5 : 14, 히13 : 7, 17) 다음에 이방인 교회 중에서도 제정되었을 것이다. 예수교회를 설립하기 시작했을 때에 처음으로 믿는자가 거의다 유대인이요, 혹시 유대인의 회당 전체가 교회로 돌아와 그 회당을 예배당으로 제공한 자가 있으므로 교회정치를 자기 본회당의 정치와 같이 제정하였고 이방인 교회에서도 동일한 정치를 시행하였을 것이다(행14 : 23, 20 : 17, 딤전5 : 1, 17, 19, 딛1 : 5, 약5 : 14, 벧전5 : 1~5) 라고 추정한다.[19]

그리고 이 직임에 대한 다른 몇 가지 명칭들이 적용되었으니 즉 「프로이스타메노이」(προιστάμενοι)—'치리자'—(롬12 : 8, 살전5 : 12), 「퀴베르네세이스」(κυβερνήσεις)—'다스리는것'—(고전12 : 28) 「헤구메노이」(ἡγουμένοι)—'인도자'—(히13 : 7, 17), 「포이메네스」(ποιμένες)—'목사'—(엡4 : 11) 등이다. 이 직분들은 분명히 자기들에게 위임된 양무리를 맡아 지키는 직임을 가진 것이었다. 이들은 하나님의 家屬으로서의 양무리를 먹이며 치리하며 보호하는 자들이었다.

신약에서 교직(ministry)에 등급이 있은 증거는 없으나 「교훈하는 장로」와 「치리하는 장로」가 교회적 권위에 있어서 동등에 있었다. 또 그들의 교회적 권위는 교회 안에 살아 계시는 주의 성령의 인도하에서 행사되는 것이었다.

"치리장로들은 목사들과 연합하여 정치와 권징을 시행할 목적으로 교인들의 선택을 받는 그들의 정당한 대표자들이다. 프로테스탄트 개혁개회들의 대부분은 이 직임은 성경에서 「치리하는 것과 잘 다스리는 자들」이라는 칭호로 지시되었다고 이해한다."(웨스트민스트 교회정치, 5장)고 말한다.

2) 목 사

「목사」는 「교사」와 함께 「에베소」 4장11절에서 발견된다. **칼빈**에 의하면 목사와 교사는 교회가 도무지 버릴수 없는 직분들이요, 두 사이의 차이를 말하면 교사는 권징이나 성례의 거행이나 훈계나 권면을 주관하지 않고 성경해석에만 주력하여 순수하고 건전한 교리가 신자들 중에 유지되게 하는 자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은 다 목사의 직무에 포함되어 있다고 했다. (기독교강요 4권 3장 4)

장로들은 본래 교사들이 아니었던 것이 분명하다. 처음에는 사도, 선지자, 전도인이 있었으므로 따로 교사들이 있을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점차로 「교훈」이 「장로직」과 더욱 밀접하게 연결되었다. 그때에라도 교사들이 즉시 별반의 직분이되지는 않았다. 「디모데 전서」 5장17절은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들을 말하고 히브리서 13장7절에 말한 "인도자"들은 역시 교사들이었다. 「디모데 후서」 2장2절에서 **바울**은 또한 능히 다른 사람들을 교훈할 수 있는 충성된 자들을 임직할 것을 **디모데**에게 부탁하였다. 시간의 進程에 따라서, 두 가지 사정이 교회의 치리만을 맡는 감시자들과 교훈을 겸임하는 자들의 구별로 引導하였으니 즉, (ㄱ) 사도들이 별세하고 이단이 증가하여 교회의 직무가 더 중대하여지고 특별한 준비를 필요하게된 것(딤후2 : 2, 딛1 : 9)과 (ㄴ) 수고하는 자는 貨金을 받음이 합당하다는 견지에서 말씀의 역사를 담임하는 자

들은 다른 직업을 포기하고 교훈의 직무에 전력하게 된 것이었다. 추상하건데 **소아세아** 7교회에서 주는 서신들의 수신인인 「사자」(ἀγγελοι=앙겔로이) 들은 필시 그 여러 교회의 교사 혹은 목사들이었다(계2 : 1, 8, 12, 18, 3 : 1, 7, 14)고 본다.

지금의 목사들은 장로들과 함께 교회를 치리하는 외에 말씀과 성례에 奉行하며 교회의 정치에 필요한 규정들을 짓는다.

웨스트민스트 「교회정치」는 「목사」를 「감독」의 별명으로 보아 「감독들 혹은 목사들」이라고 하고, 목사의 다른 성경적 칭호들을 열거하여 「목자」(렘3 : 15, 벧전5 : 2~4), 「그리스도의 종」「그리스도의 사역자」「신약의 집사」(빌1 : 1, 고전4 : 1, 고후3 : 6) 「장로」, (벧전5 : 1~3), 「교회의 사자」(계2 : 1), 「그리스도의 사신 혹은 복음의 사신」(고후5 : 20, 엡6 : 20), 「교사」(딤1 : 9, 딤전2 : 7, 딤후1 : 11), 「전도인」(딤후4 : 5), 「청지기」(눅12 : 42, 고전4 : 1, 2)라고 했다.

이는 목사직의 계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그것의 각양 책임을 가리키는 것일 뿐이다.

목사를 감독이라 칭하여도 성경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 사도행전 20장28절에 이른바 감독과, 「디모데 전서」 3장1절~7절에 이른바 감독의 자격은 목사에게도 적합하고 「디도서」 1장5절에 명한 바는 목사의 직무에 적합하며 항상 존속할 직분 중에는 목사보다 더 귀한자가 없으니 목사직을 감독직으로 볼 것이다.

감독정치를 하는 교회에서는 목사의 직임을 3급에 나누어 감독, 장로목사, 혹 신부, 집사 목사로 나누고, 또 로마 교회에 있어서는 이 3급 위에 월등한 교황이 군림하여 교회를 총지휘하나 이것은 성경에 암시되지 아니한 인간의 제도로 보인다.

또 성경은 목사나 장로를 신부 혹은 제사장으로 호칭한 일은 없다.

목사의 직무에 있어서 그가 자신적으로 특별히 행할 일은 성경에 기초하여 강도하는것, 세례와 성찬을 거행하는것, 교인에게 축복하는 것, 장로를 장립 하는 것등이다. 목사가 치리장로로 더불어 함께 행할 일은 본교회 안에서 치리하는 것과 당회와 노회와 총회에서 하는 일들이다. 목사가 집사와 더불어 행할 일은 빈곤한 교우를 돌아보는 것과 구제하는 것과 또 교회의 유지 방침을 의논하고 시행하는 것이라고 **하지**는 말하고 있다.[20]

3) 집 사

「빌립보서」 1장1절에 있는 사도 **바울**의 공적문안에 의하면 집사는 사도시대교회의 두 주요직분의 하나이었던 것을 추측할 수 있다. 신약에서 집사는 「디아코노이」(διακονοι)라는 말로 표현되었다.

일반적인 의견에 따르면 사도행전 6장1절—6절은 집사직 설정의 기록을 포함한다. 학자들 간에는 사도행전 6장의 직분을 장로와 집사를 포함하는 일반적 직임으로 생각하는 이도 있다한다.

그들은 그 피선된 7인 중에 어떤이들이 (스데반, 빌립 등) 현저히 교훈에 종사한 사실에서, 또는 「사도행전」 11장30절에는 **안디옥**에서 수집된 금전이 장로들의 손에 위탁되었다고 보도된 사실에 주의를 촉구한다.

사도행전 6장의 본문에는 집사에 대한 언급은 애초에 없다. 그러나 「사도행전」 6장은 필시 집사직의 설립에 관설함인 것으로 생각한다. 왜냐하면 (ㄱ) 「디아코노」이라는 명칭은 전에는 항상 일군 이라는 일반적인 의미로 사용되던 말로서 신약에서는 궁휼과 자선의 사역에 종사하는 자들을 독점적으로 지시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그 이유의 유일한 설명이 「사도행전」 6장에서 발견되는 것이다. (ㄴ) 사도행전 6장의 7인은 구제를 위하여 봉헌된 선물들을 적절히 분배하는 직무를 맡았으니 그 사역은 다른 곳에서 더욱 특수히 「디아코니아」(διακονία=협조, 봉사)로 묘사된 것이다(행11 : 29, 롬12 : 7, 고후8 : 4, 9 : 1, 12, 13, 계2 : 9). (ㄷ) 그리고 이 직위에 필요한 자격은 신중히 고려되었는데 그 점에서 「디모데전서」 3장8절~10절과 12절에 진술된 요구와는 同義하다.

(ㄹ) 집사직은 후대 감독직이 나타날 때까지는 발전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는 비평가들의 말은 찬성하기 어렵다.

칼빈도 집사직의 기원, 설정, 직무가 「사도행전」 6장3절에서 **누가**에 의하여 묘사되었다고 말했다.

칼빈은 「로마서」 12장8절에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고 한 말씀에 의거하여 집사에 두 반열이 있었다고 단정하였었다. 즉 그 하나는 구제를 맡은 자들이요, 다른 하나는 가난한 자와 병든 자를 돌아보는 자들이라고 하였었다.[21]

웨스트민스트 교회정치 6장에는 "성경은 집사들을 교회에 당연한 직원들로 분명히 지적하나니(빌1 : 1, 딤전3 : 8~15) 그들의 사무는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는 것, 그들의 사용을 위하여 모집한 헌금을 그들 중에 분배하는 것이다(행6 : 1, 2). 그들에게는 또한 교회의 현세적 사건들의 처리가 정당히 위임될 수 있다(행6 : 3, 5, 6)."고 하였고 **하지**의 교회정치문답조례 6장에서도 "금일 집사의 직무는 교회에 속한 一切 재정을 관리하는 것과 빈핍, 곤란한 교인들을 살펴 구제하는 일을 주관하고 재정에 관한 문서를 보관하는 것이라고 약술하고 있다.

그리고 "장립집사의 임기는 종신까지니 장로의 직분과도 마찬가지로 임의로 사면하지 못할 것이요 상회가 재판하기 전에는 파면하지도 못한다. 그러나 혹 임시로 정지할 수는 있다."라고 **하지** 교회정치문답조례 6장에 부연하고 있다.

제Ⅲ부 결 론

교회의 일치

이상에서 우리는 모든 직분들을 여러가지 각도에서 고찰하였고, 또 각 직분들의 성격과 위치를 개관하였었다.

우리의 몸에 여러 지체가 있으나 몸은 하나인 것과 같이 직임은 여럿이나 주님은 한 분이시며 교회의 머리이시다.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니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엡4 : 4~12).

C. 하지는 이 주제에 대하여 그의 저서 「교회와 그의 정치」에서 말하기를, "장로교 교리는, 교회가 작은 직분은 그보다 큰 직분에 복종하고 다시 그 큰 직분은 전체에 복종하는 한에 있어서 하나이라"고 주장하였다. 교회의 모든 직분은 먼저 교회들을 섬겨주신 그리스도의 몸안에서 영원히 하나인 것이다.

한 부르심의 소망과 하나인 성령의 내주하심 안에서 믿음도, 세례도, 역사하심도 하나이신 몸이 하나이시니 모든 직분은 이 범위 안에 있는 한에 있어서 교회의 직원인 것이다.

(1) 소 망

교회의 직원이 되는 "이 존귀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히5 : 4)" 이 소명에 대하여 박형룡교수는 말하기를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어떤 통상적 섭리적 지시로 구성되며 특별히 세가지를 포함한다."고 하였다.

(ㄱ) 하나님과 그의 거룩한 뜻에 향한 사람에 의하여, 하나님 나라의 어떤 특별한 사역에 헌신하기로 강박된다는 의식.

(ㄴ) 그 추구되는 직임에 적당한 은사의 일정량이 자기에게 현존한다는 확신.

(ㄷ) 하나님이 그 목표를 향하여 길을 열어 주신다는 경험이라고 하였다.[22]

(2) 성령의 내주

교회는 성령의 內住로 말미암아 하나로 이루어졌다고 한다. 인간의 모든 지체가 한 영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기 때문에 하나인 것 같이 교회는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이다.

(3) 형제간의 복종

너희는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자가 되어야 하리라."(마23 : 10~11)

복종의 완전성을 보이신다. 개인간의 복종과 개인의 교회에 대한 복종과 개교회의 전체 교회에 대한 복종도 같은 모습으로 미루어 행할 수 있는 것이다.

(4) 사도시대의 교회는 한 몸

사도시대의 교회는 한 몸으로서 개교회는 한 몸의 구성요소와 같이 모든 다른 교회에 의존하

여 있었다. 마치 식물의 가지들이 그 등치에 붙어서 그 중심에 의존하여 역학적 균형을 이루는 바와 마찬가지로 사도시대의 교회들은 성령이 내주하시는 힘에 의하여 생성 되어지고 균형을 이루어 정상을 이룩하여 있었던 것이다. 그 때에는 복음이 가는 곳마다 믿는 자가 생겼는데, 성경은 기록하기를 "믿는 자의 수가 더하였더라"고 표현하였다. 이것은 명실공히 첨가되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등치에 붙어있는 가지에서 또 가지가 發生해도 그 등치에 붙어있어 나무는 하나인 것처럼 교회는 中心을 향하여는 하나이요, 밖을 향해서는 기능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고로 교회의 일치는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본분이 된다는 사실이다.

註 1) 박형룡저 教義神學 Ⅵ 3/3 pp. 122.
2) Ibid 〃 〃 pp. 122—6.
3) Ibid 〃 〃 pp. 123.
4) Ibid 〃 〃 pp. 123—6.
5) Ibid 〃 〃 pp. 124.
6) John Calvin :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Ⅳ 1/5, 3/1.
7) Ibid Ⅵ 3/1.
8) 고린도후서 5 : 20.
9) John Calvin : Institutes Ⅳ. 3/1, (引用 어그스틴의 「기독교 교리에 관하여」 Ⅳ. 27, 59, MSL 34, 18을 지칭하는듯)
10) 박형룡저 教義神學 Ⅳ. 3, p. 139. John Calvin :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Ⅳ. 3/4,
11) Ibid Ⅳ. 3/4.
12) 교회정치문답조례 3장.
13) Tohn Calvin :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Ⅳ. 3/4.
14) 교회정치문답조례 3장
15) 박형룡저 教義神學 Ⅵ. 3/3, pp. 136.
16) John Calvin :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Ⅳ. 3/4, 3/8.
17) 교회정치문답조례 3장
18) 박형룡저 教義神學 Ⅳ. 3/6, pp. 137.
19) Ibid Ⅳ. 3/6, pp. 138.
20) J. A. 하지저 교회정치문답조례 4장.
21) John Calvin :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Ⅳ. 3/9.
22) 박형룡저 教義神學 Ⅵ. 3/6, pp. 143.

參 考 圖 書

John Calvin :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Ⅲ, Ⅳ卷.
박형룡저 教義神學
C. 하지저, 교회와 政治.
J. A. 하지저, 교회정치문답조례
同 신앙고백에 대한 주석.
깃델編, 新約神學辭典.
W. 컨닝함저, 改革者들과 개혁의 신학.